

순천정원박람회 '티켓 마케팅' 불 붙었다

13개 시·군, 티켓 소지자에 관광지 요금 할인 숙박업소 이용시 혜택 등 성공개최 준비 만전

순천정원박람회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티켓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지역 일선 시군들은 티켓 소지자에게 관광지 할인혜택을 주고 순천시도 박람회 전 기간 입장이 가능한

일명 '시민권' 소지자에게 관광지 무료 입장이라는 파격 조건을 내놓았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가 관광시설과 숙박업소 이용시 요금할

인을 해주는 행사에 전남 도내 13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여 자치단체는 순천시를 포함해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화순군, 해남군, 영광군, 무안군, 장성군이다.

이들 시군은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가 관내 관광시설과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최대 무료 입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군별 자세한 혜택 내용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http://2013ex-

po.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순천시의 경우 박람회 전 기간(4월 20일~10월 20일) 동안 박람회장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입장권인 '시민권' 소지자에겐 같은 기간동안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는 나안읍성, 드라마촬영장, 순천자연휴양림,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무료 입장하도록 했다.

또 선암사와 송광사 등 나머지 관광지에 대해서는 박람회 기간동안 50%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민권은 정원박람회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시청 민원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시청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사진 없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구입가격은 4월 12까지는 10%할인된 금액으로 성인 5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와 65세 이상 시민은 각각 3만원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내 13개 시·군이 티켓 마케팅에 동참함으로써 박람회 성공개최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여수시 '박람회 활용과' 신설 정신 계승·사후 활용 극대화

시, 4개팀 16명으로

여수시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박람회 활용과'를 신설하는 등 박람회 정신 계승과 사후활용 극대화에 나섰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박람회 활용과는 박람회 활용지원, 박람회 기념사업, 국제협력, MICE산업 탐 등 4개팀 16명으로 구성됐다.

신설과는 지난달 말 청산된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여수박람회 재단 지원 업무와 박람회장 재개장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박람회 개최 이념 정신을 계승할 기념사업 추진과 박람회 성공개최 2주년 기념행사도 추진한다.
또 박람회를 계기로 확충된 다

양한 숙박과 컨벤션 시설을 활용해 국제회의는 물론 국·내외 행사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여수박람회 재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박람회장을 국제해양관광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개장 초기 숙박과 음식 등 바가지 상흔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됐던 시행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 등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은 물론 셔틀버스 운행 등 다양한 관광객 유인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정원박람회장, 정부 인정 체험학습장

순천시-과기부 협약 체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이 정부가 인정하는 녹색환경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된다.

조충훈 순천시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 8일 정원박람회장 내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정원박람회장을 녹색환경 체험학습장 활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정원박람회장은 교과부가 인정하는 학생들의 녹색

체험활동과 환경교육을 겸한 인정 학습장이 됐다.

이 장관은 "전국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정원박람회장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힘을 보탤다. 조 시장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계기가 돼 전국에서 많은 학생과 교사 등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발간

전남도 동부출장소

전남도 동부출장소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화학물질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환경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작성했다.
동부출장소는 이 매뉴얼을 여수산업단 등 도내 6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지자체, 소방서,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 오동도 설치 모형 거북선

여수시가 지난 7일 국립공원 오동도에 새로 설치한 모형 거북선. 2억 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은 길이 15m, 높이 4.5m, 너비 2.8m 크기로 국내산 삼나무로 제작됐다.
/여수시 제공

고흥 연 5000만원 이상 소득 2060가구

고흥군은 최근 관내 농업 등 해당 1만6683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전조사 결과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가구는 206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12%에 해당하며 2011년 1736가구보다 324가구가 늘어났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가구 수도 577가구로 전년보다 109가구가 증가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

전북

남원 운봉 백두대간 3만3000여㎡ 국내 최대 생태체험 교육장 만든다

산림청, 내년까지 400억 투입

산림청이 전북도, 남원시와 함께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가는 남원시 운봉읍 일원에 2014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백두대간 생태체험 교육장을 만든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들여 3만3000여㎡에 백두대간 주계길, 산악 모험원, 숲속 휴양원 등 체험휴양 시설과 야생 동·식물전시관을 포함하는 국내 최초의 4계절 테마파크형 생태문화전시기관을 짓는다.

지리산 둘레길과 백두대간 마루금에 연접해 한반도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이 시설은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홍보하고 모든 국민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세워진다.

생태문화전시기관 조성 예정지인 운봉읍 노치마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가는 마을로 영호남의 주요 분수령이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흐른 물은 진주 남강을 지나 낙동강에 닿고, 서쪽으로 흐른 물은 남원 요철을 지나 섬진강으로 합류한다.

산림청은 생태교육장이 완공되면 지리산 둘레길, 배재봉 철쭉관람지와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총복 괴산, 경북 상주, 강원 양양 3곳에서 백두대간 산림생태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전북도, 670명 최종 확정

올해 전북도에서 해외연수를 떠날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이 670명으로 확정됐다.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오는 4월 1~12일 해외연수 장학생 신청서를 받아 시·군 서류평가 및 면접을 거쳐 670명을 뽑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초등생(8주) 448명, 중학생(8주) 174명, 특성화 고교생(12주) 25명, 대학생(48주) 23명이다. 초등과 중등학생의 연수지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 등 4개국이다. 인재육성재단은 오는 5월24일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노인 자살방지 예방 교육

남원시 보건소

남원시 보건소가 노인층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나섰다.

남원시는 농촌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고령노인 등이 증가하면서 신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으로 인해 자살하는 노인이 늘고 있어 예방교육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남원시는 이달 말까지 농한기를 이용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우울증·자살예방 교육을 한다. 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생명지킴이 7대 선언 서명'과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김항식 총리 군산 근대사박물관 방문

지난 8일 군산 근대사박물관을 방문한 김항식 국무총리가 근대생활관에서 박물관 자원봉사연극팀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총리는 '1930년 시간여행'이란 연극공연과 쌍천 이영춘박사의 영상 및 전시물을 관람했다.
/군산시 제공

김항식 총리 등 10여명은 이날 박물관을 방문한 김항식 국무총리가 근대생활관에서 박물관 자원봉사연극팀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총리는 '1930년 시간여행'이란 연극공연과 쌍천 이영춘박사의 영상 및 전시물을 관람했다.
/군산시 제공

전주시 '책 읽는 도시 만들기' 나섰다

'독서마라톤대회' 참여 시민들에 완주증 전달

농촌지역·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

전주시 평생교육원이 '책 읽는 도시' 만들기 나섰다. 우선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에 마라톤 방식을 접목한 독서마라톤대회를 연다. 책 1권을 읽으면 마라톤 1m를 뺀 것으로 환산한다.

마라톤처럼 3km(책 3000쪽), 5km(5000쪽), 하프 코스(2만쪽), 풀코스(4만2195쪽)으로 나뉜 참가 종목을 선택, 목표량을 달성하면 완주증을 준다. 또 이들에게는 도서관의 대출권수를 확대해준다. 학생은 학업기록부 특기사항에 다독(多讀) 기록이 올라가도록 학교에 요청하기로 했다.
책 읽기가 쉽지 않은 농촌지역이나 다문화 가정, 장애인학교,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아동독서지도, 영어독서지도, 동화구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에서 원하는 책을 받아보도록 무료로 택배 서비스한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북스타트' 운동도 5월부터 시작된다. 생후 6~18개월의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8개의 전주 시립도

서관이 책 꾸러미를 보내고 책 놀이 활동을 지원한다.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이달의 추천도서'도 매달 7권씩 소개된다.
선정 도서는 시정소식지인 '미래를 여는 천 년 전주'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jeonju.go.kr)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책들은 유광한 전주대 총장과 독서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좋은 책 놀이지원단'이 뽑은 것들이다. 아울러 완산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을 설치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이 모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태국·베트남·중국 등 5개국의 잡지와 문학 책, 실용도서 등을 비치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전주시, 공공도서관 4개 추가 건립

전주시가 공공도서관 4개를 추가로 짓는다.

올해 3월 우아동에 아중도서관이 개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팔봉·동산·조촌동 권역에 북부도서관이 문을 연다.
또 50억원을 들여 우아·호성동 권역에 2층 규모의 우호도서관(가칭)을 내년 말까지 건립기로 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효자 5지구에도 4층 규모의 효자도서관이 2015년 완공된다.
현재 시립도서관 7곳을 운영하는 전주시는 이들 도서관이 추가로 들어서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 중 현재 2위인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 확보율이 1위로 올라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새만금특별법 발효...도, 내일 사업설명회

오는 9월 새만금특별법 발효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등 새만금 사업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등 새만금 사업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교육청, 교육기부문화 활성화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교육 기부 문화'를 활성화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기부 자원을 많이 확보해 창의적인 체험활동, 주5일 수업제, 방과 후 교육 등 교육과정의 각 분야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데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특히 교육기부 홈페이지(http://lib.jeonju.go.kr)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책들은 유광한 전주대 총장과 독서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좋은 책 놀이지원단'이 뽑은 것들이다. 아울러 완산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을 설치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이 모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태국·베트남·중국 등 5개국의 잡지와 문학 책, 실용도서 등을 비치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를 구축한 기부뱅크를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며 우수 교육기부자를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활용하는 개인에게는 행복이, 기부받은 이웃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전북병무청 "병역명문가 찾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15일까지 3대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형제), 본인(형제·종형제) 등 3대가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전투·의무·해양경찰과 경비

교도·의무소방관·상근예비비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전북병무청 민원실(063-281-3256)로 하면 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